

## 1. 단어 형성의 유형이 다른 것은?

- ① 군밤                                  ② 군소리  
③ 군침                                  ④ 군식구

## 2.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 야식으로 치킨과 맥주를 마셨다.  
② 건강 관리를 위해 주중에는 헬스를, 주말에는 등산을 한다.  
③ 내 꿈은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 모두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  
④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 카네이션을 받는다.

## 3. ‘끝, 마지막’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는?

- ① 겨우내                                ② 끝내  
③ 그제                                    ④ 급기야

## 4. &lt;보기&gt;의 ㉠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속담은?

—<보기>—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소비의 중요한 순기능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단순히 ‘기능적인 필요’만으로 구매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기분 전환을 위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쇼핑하는 그 자체로 재미와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 하지만 남들이 다 한다고 나의 경제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규모의 소비를 하면서 ‘플렉스’라는 감정적인 가치로 자신을 속이는 것은 결코 균형 잡힌 소비라고 볼 수 없다. 유행하는 스타일과 소비 형태가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되는 현대에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의식하지 않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굳이 비싼 상품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상품을 가격만큼의 효용 가치를 꼼꼼히 따져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현명한 소비 습관은 주체적인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 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②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③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④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책은 많은데 읽은 것은 적다. 이전에 배운 것은 몸에 익숙하지가 않고, 새로 배운 것은 아직 낯설다. 책장을 펼치기만 하면 게으른 마음이 생겨난다.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움은 점점 더 거칠어져서 마침내는 새것과 옛것이 모두 없어지기에 이른다. 이것은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문제점이다.

한 글자마다 한 글자의 뜻을 찾아보고, 한 구절마다 한 구절의 의미를 따져보며, 한 단락을 이같이 하고, 한 권을 이처럼 해야 한다. 굳이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적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꼼꼼하게 하기에 힘을 쏟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 뒤에는 책 한 권을 베껴 쓰면 내 것이 되고, 책 두 권을 베껴 써도 내 것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면 열 권 백 권이 아니라 천 권 만 권을 읽어도 모두 내 것 아님이 없고 책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렇지 않고 그저 읽기만 하면 회계산에 있는 등나무를 다 캐어 종이로 만들고, 중산 땅의 토끼를 다 잡아 그 털로 붓을 만들어서, 아침에 책 열 권을 베끼고, 저녁에 책 열 권을 베껴 써서 온 세상의 책을 한 권도 남기지 않고 베낀다고 해도 책은 책이요, 나는 나일 뿐이어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특별히 경계하도록 해라.

## 5.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독(多讀)의 필요성  
② 거친 배움의 위험성  
③ 정독(精讀)의 중요성  
④ 필사(筆寫)의 가치와 기능

## 6. 윗글에서 ㉠의 맥락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에 책이 많지만 게을러 많이 읽지 못하였다.  
② 책을 많이 읽었지만 정작 내 것으로 만든 책은 적다.  
③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기에 책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한다.  
④ 책이나 글을 백 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된다.

## 7. &lt;보기&gt;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일 것
- 필수 성분을 두 개 요구하는 동사가 쓰일 것

- ① 나는 어제 산 책을 벌써 다 읽었다.  
② 그의 성격은 자기 동생과 비슷하다.  
③ 나는 항상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간다.  
④ 그는 바쁜 생활 때문에 많이 늙었다.

8. <보기>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사회자: 우리나라의 교통 체증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분야의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각자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 김 국장: 교통 체증은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발생합니다. 승용차 십부제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윤 사장: 돈이 많은 회사는 번호판이 다른 차를 하나 더 구입하면 되겠지만 영세한 사업가들이 하루 동안 차량 운행을 못한다면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 사회자: 두 가지 의견을 조금 조정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승용차 십부제 운행에서 상업용은 제외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 ① ㉠에서 사회자는 교통 체증 해결 방안이라는 토의 과제를 설명한다.  
 ② ㉡에서 김 국장은 승용차 십부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한다.  
 ③ ㉢에서 윤 사장은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④ ㉣에서 사회자는 현안에 대한 조정안을 제안한다.

9. 밑줄 친 단어 중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것은?

- ① 그는 심지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② 예전에는 상처에 된장을 붙여 치료하기도 했다.  
 ③ 창문을 여니 시소와 그네가 있는 놀이터가 눈에 들어 왔다.  
 ④ 박 선생은, 지나치게 모나고 고지식한 면이 없지는 않았다.

10.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chipmunk[tʃɪpmʌŋk]: 칩멍크  
 ② kidnap[kɪdnæp]: 키드내프  
 ③ topknot[tɒpnɒt]: 톱낫  
 ④ battalion[bətæljən]: 바탈리언

1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장날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가서 맛난 것을 먹을 수 있었다. 형제에게 그것은 유일한 나들이이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리하여 형과 아우는 장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 ① 鶴首苦待                      ② 苦盡甘來  
 ③ 甘香苦吐                      ④ 他山之石

12. <보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그렇다면 종 간의 다툼은 어떠할까? 다른 종의 구성원은 같은 종의 구성원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 때문에 자원을 놓고 다른 종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도 그러하다. ... (중략) ... 그런데 다른 종 개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사자는 영양을 잡아먹고 싶어 하나 영양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 보통 이것을 자원에 대한 경쟁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때의 자원은 고기다. 사자의 유전자는 자기의 생존 기계의 먹이로서 그 고기를 ‘원한다’. 영양의 유전자는 자기의 생존 기계를 위해 일하는 근육이나 기관으로서 그 고기를 필요로 한다.

- ① 일반적으로 각각 다른 종의 구성원들 간의 경쟁은 같은 종의 구성원들 간의 경쟁보다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② 다른 종의 구성원들 간에 경쟁이 일어날 때에는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뿐이다.  
 ③ 사자가 필요로 하는 고기와 영양이 필요로 하는 고기는 그 용도가 다르다.  
 ④ 먹고 먹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들이 생존을 두고 벌이는 경쟁도 근본적으로는 자원을 두고 벌이는 경쟁에 해당한다.

13.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찻죽에 갈겨  
 마춤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우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꾸러야하나?  
 한발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보다.

- 이육사, 「절정」 -

- ① 화자는 수평적으로 펼쳐진 대지의 끝에서 ‘북방’이라는 현실의 극한점을 경험하고 있다.  
 ② 화자는 무릎을 꿇어서라도 고통의 극한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실존적 열망을 드러낸다.  
 ③ 화자는 단단하고 차가운 이미지와 이와 대비되는 이미지가 역설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떠올리고 있다.  
 ④ 화자는 수직적 세계의 정점인 고원에 이르러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낸다.

14. <보기 1>을 고려하여 <보기 2>의 밑줄 친 부분의 표준 발음을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 ㉠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흘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보기 2>

아들 내외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 ① ㉠에 따라 [부어게서]라고 발음한다.  
 ② ㉡에 따라 [부어게서]라고 발음한다.  
 ③ ㉢에 따라 [부어게서]라고 발음한다.  
 ④ ㉣에 따라 [부어게서]라고 발음한다.

15. <보기>의 문학사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작품들이 나타나 새로운 시가문학의 등장을 알렸다.  
 ㄴ. 「한림별곡」과 같은 경기체가가 등장하였으며, 주된 문학 담당층은 당시의 귀족 계급들이었다.  
 ㄷ. 「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과 같은 국문소설들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폭넓게 향유되었다.  
 ㄹ. 「제망매가」, 「도술가」, 「헌화가」와 같은 향가가 활발히 창작되었다.  
 ㅁ. 「혈의 루」, 「은세계」, 「자유종」과 같은 국문소설들이 창작되어 새로운 소설의 시대를 열었다.

- ① ㄴ - ㄹ - ㄱ - ㅁ - ㄷ  
 ② ㄴ - ㄹ - ㄷ - ㄱ - ㅁ  
 ③ ㄹ - ㄱ - ㄴ - ㄷ - ㅁ  
 ④ ㄹ - ㄴ - ㄱ - ㄷ - ㅁ

16.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게 쓰인 문장은?

- ① 그는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력이 강했다.  
 ② 하니바람은 맑은 날 서쪽에서 불어온다.  
 ③ 이것을 백분률로 나타내 보아라.  
 ④ 벼르고 별르다가 오늘은 기어코 야단을 쳤다.

17. <보기>는 소설가 이해조가 「화의 혈(花의 血)」이라는 소설을 연재하면서 썼던 후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설이라 하는 것은 대양 빙공착영(憑空捉影)으로 인정에 맞도록 편집하여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 바 그와 방불한 사람과 방불한 사실이 있고 보면 애독하시는 모든 부인, 신사의 진진한 재미가 한층 더 생길 것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실을 경계하는 좋은 영향도 없지 아니할지라. 고로 본 기자는 이 소설을 기록하며 스스로 그 재미와 그 영향이 있음을 바라고 또 바라노라.

- ① 이해조는 소설이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② 이해조는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독자의 재미가 한층 더 생긴다고 본다.  
 ③ 이해조는 소설 속 내용을 통해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일깨우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④ 이해조는 소설이 담고 있는 메시지보다, 있을 법한 사실을 다뤄 독자의 재미를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18. <보기>에서 설명하는 작품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자성어는?

<보기>

무대를 황해도 황주군으로 하고 인명을 심학규라고 하고 몸을 팔아서라도 눈먼 아비의 효양을 애쓰는 것은 향토적 색채를 가장 농후케 한다. 작자는 심청을 이상화시키고자 하여 다른 모든 설화에서 보여 주지 못하는 효성을 그렸다. 심청이 인당수로 떠나는 광경과 심학규의 먼 눈이 다시 열리는 광경은 기쁨과 슬픔 사이의 좋은 대조이다. 심청으로 하여금 금전과 은의의 충돌에서 죽게 한 것은 그 정경이 사람의 눈물을 내지 않고는 가만 있을 수 없게 하고, 죽음에서 삶을 얻고 비천함에서 귀함을 얻고 영별(永別)에서 해후를 얻은 희극은 인생의 최고의 희열일 것이다.

- ① 金科玉條  
 ② 反哺之孝  
 ③ 錦上添花  
 ④ 南柯一夢

19. &lt;보기&gt;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lt;보기&gt;

그림문자는 시각 체계에 의해 쉽게 인지된다. 구술언어에서 사용되는 대상의 이름과 짝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모든 문자들이 이집트의 신성문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신성문자는 강이나 뱀, 백합 꽃대와 같이 세상에 실재하는 이미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수메르어의 쐐기문자는 고안되자마자 신기하게도 그리고 상당히 놀랍게도 세련된 형태로 변해갔다. 그림 문자적 성격이 사라진 상징은 보다 표의적, 추상적으로 바뀌었다. 표의적 문자체계는 단어가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언어의 개념을 직접 전달한다. 시간이 흐르자 수메르어의 글자들 가운데 다수가 구술언어에 사용되던 음절의 일부를 표상하기 시작했다. 이 체계는 뇌에 훨씬 많은 작용을 하도록 요구한다.

- ①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이집트의 신성문자는 실재하는 이미지에 뿌리를 둔 그림문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 ② 수메르어의 쐐기문자는 그림문자가 전달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까지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변천했다.
- ③ 그림문자는 문자의 시각적 이미지로 대상의 이름을 연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는 전혀 다른 기원을 통해서 발전했다.

20. &lt;보기&gt;의 ‘환상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lt;보기&gt;

정신분석에서 환상은 현실의 편에 존재합니다. 현실에서 안 되는 게 환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게 바로 환상입니다. 환상 공간이란 나만의 공간, 내가 좋아하는 공간, 내가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 반대편에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감옥 같은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냥 명령에 따라야 하는 곳, 심지어 불합리한 명령도 일상이 되는 곳, ‘나’, ‘내 삶’이 사라지는 곳이 있다면, 반대편에는 나다워지는 곳, 내 잠재력이 발휘되는 공간, 내가 힘을 받는 장소가 있겠죠. 영화 <트루먼 쇼>에서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피지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지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곳인데, 피지가 바로 환상 공간이에요. 그가 행복해지는 곳, 그를 기쁘게 만드는 장소죠. 이 환상 공간이 있기에 그가 모든 것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환상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략)

환상 공간에서 보호받는 내가 있다면 그 반대편, 카프카적인 어둠 속에 있는 나도 있습니다. 후자는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꿈은 우리가 그림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림자를 내 환상 공간에 초대할 수 있어야겠죠. 그 절망과 우울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면, 나는 내 환상 공간을 지어내고 지켜낼 수 없습니다. 밝은 모습 아래 길게 늘어져 있는 그림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악을 쓰고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 그림자를 만나는 장소는 ‘꿈’입니다.

- ① 환상 공간은 현실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돕는다.
- ② 환상 공간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 ③ 환상 공간에 절망과 우울함을 위한 자리는 없다.
- ④ 환상 공간은 현실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